

김수영 시의 미의식 연구*

- '숭고' 지향성을 중심으로 -

한용국**

|| 차례 ||

- I. 서론
- II. 생활의 부정성과 반속(反俗)정신의 숭고지향
- III. 위대한 소재를 통한 무한성의 숭고지향
- IV. 혁명의 부정성과 사랑의 숭고지향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수영 시의 미의식을 '숭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김수영에게 '생활'은 그 자체로서 숭고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 부정성을 통한 숭고의 저항적 계기로서의 시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그의 저항성은 그의 시에서 무한성의 추구로 드러난다. 일반적 숭고 이론에 따르면 숭고는 '거대한 것', '무한한 것'으로 주어진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수영의 무한성의 추구는 평범한 소재에 무한성과 영원성을 부여하여 그 자체 내에 숭고의 계기를 내장함으로써 시적 주체로 하여금 주체 내부에서 시적 숭고의 계기를 추동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4.19 혁명 이후 김수영의 시는 혁명의 좌절에 대한 부정적 숭고를 시로서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 숭고의 저항적 계기를 추구하였다. 김수영은 '용감한 착오'라는 내적 숭고의 추구를 통해 자유의 정신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시 '자본'이라는 부정적 숭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465).

** 건국대학교 강사.

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거대한 뿌리’라는 송고의 계기를 창출해 내면서, 그 속에서 속물화되는 자신의 자기폭로를 통해 ‘사랑’의 ‘내적 송고’를 추동할 수 있었다.

김수영의 시의 ‘송고’에 독특한 양상은 부단히 새로운 송고의 계기를 시를 통해 탐색해 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물들에 ‘크고 위대하고 깊이 있는’ 송고를 부여하는 작업을 김수영이 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김수영, 생활, 자본, 부정성, 송고, 무한성, 자유, 사랑

I. 서론

김수영 시의 연구는 지금까지 전기주의적, 사회역사적 관점과 함께 문예운동적, 수사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물들이 산출되었지만, 그 속에서 정작 김수영 시인의 미학적 태도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문학텍스트는 한 시대 혹은 한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시적 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응전의 정신적 동력을 미학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김수영의 시를 특히 ‘송고’의 미의식에 주목하여 미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김수영의 시에 대한 접근방식을 더하고자 한다. ‘송고’의 미의식은 현대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김수영의 시를 송고라는 미적 범주를 통해 분석하여 다양한 해석의 자장을 거느리는 김수영 시의 해석에 미학적 가치영역을 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송고’는 미적 갈래의 하나인 ‘송고미’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미학의 역사와 갈래 속에 정립된 것이다. 롱기누스에서 촉발된 ‘송고미’는 영국의 경

협론과 독일의 관념론과 만나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숭고’라는 독립적인 미의식으로 분화해 나왔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리오타르와 하버마스 등에 이르러, 아방가르드 미학과 결합하면서 시대적 전위의 양식이 보여주는 미적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김수영의 시를 ‘숭고’의 범주에서 연구하는 이 연구는 한국 현대시의 기저에 내재된 전위적 성격의 일단을 미학적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보고, ‘숭고’라는 미학적 태도가 당대 시인들의 부정성과 전위성을 담지해내는 미적 자세였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김수영의 시를 ‘숭고’라는 미의식을 통해 살피는 것은 김수영의 현대성의 중요한 동력의 기원을 파악하게 하고, 한국시의 전위성을 촉발시킨 계기를 탐색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현대시의 숭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주로 숭고에 대한 연구는 미학적 영역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주체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다. 연구대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숭고와 관련한 연구로 우선 조연정¹⁾의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숭고’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가 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타나는 숭고의 이론을 통해 1930년대 후반기 억압적인 상황에서 지식인이라는 문학주체가 어떻게 윤리적 대응 방식을 취했는가를 살피고 있다. 숭고의 문제를 파시즘과 관련하여 친일파 시즘문학을 연구한 것으로 박현수²⁾의 『친일파시즘 문학의 숭고미학적 연구』가 있다. 칸트의 ‘불쾌-쾌’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공포와 불안의 반대급부로 얻어진 황홀이 과대망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인간성을 배제하는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것이 파시즘임을 밝히면서, 일상과 의존관계에 있는 황홀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 고립된 황홀에 도착증적으로 집착

1) 조연정,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숭고’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 박현수, 『친일파시즘 문학의 숭고미학적 연구』, 『어문학』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하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 파시즘 문인의 패착임을 밝히고 있다.

이재복³⁾은 『한국 현대시와 송고』에서 윤동주와 이육사의 시를 분석하면서 한국 현대시 해석에서 송고의 개념이 미학의 한 원리를 이룰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현대시의 송고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송고가 극대화되면 이데올로기의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늘 존재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송고성이 형이상학적인 극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자연성’임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한국 현대시와 송고에 관한 논의는 아직 출발선상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수영의 시를 미학적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수영의 시를 송고의 미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한 논문으로 김미정⁴⁾의 『김수영 시의 송고미와 윤리성의 관계 연구』가 있다. 김수영의 시의 죽음의식과 자유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김수영 시의 구조가 ‘타자의 지평’을 탐입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총체성의 한계 상황의 긴장 속에서 공동체의 ‘공동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정향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른 논문으로는 주영중⁵⁾의 『김수영 시의 송고 특성

3)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송고』, 『한국언어문화』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한국 현대시의 송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4) 김미정, 『김수영 시의 송고미와 윤리성의 관계 연구』, 『비평문학』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5) 주영중, 『김수영 시의 송고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42집, 2012. 이외 한국시와 관련한 논문들로는 다음과 같다. 김동우, 『롱기누스 송고론의 시학적 전유』, 『한국문화이론과 비평』43집,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09.;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송고 연구에 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윤의섭, 『근대시에서 ‘송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김점용, 『이육사 시의 송고미』, 『한국시학연구』17호, 한국시학회, 2006.; 주영중, 『김수영 시론의 송고 특성 연구』, 『비평문학』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홍인숙, 『백석 시에 나타난 송고의 양상』, 『비평문학』45호, 한국비평문학회,

연구」가 있다. 김수영의 시를 일련의 숭고의 계기를 통해 밝히면서 김수영 시의 본질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한 논문이다. 그 속에서 김수영 시의 주체가 완전한 수동성이나 무조건적인 자유를 표명하는 능동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타자의 우월한 힘-숭고-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힘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자리를 찾고자 끊임없이 시도하였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김수영의 시에 한정하여 정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김수영 시에 어떻게 ‘숭고’의 계기가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김수영의 시를 편의상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4.19를 중심으로 김수영의 시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자는 김수영 시의 미의식 또한 4.19를 기점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김수영 시의 ‘숭고’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수영 시의 연구 및 한국 현대시의 연구에 미적 분석틀을 더하고자 한다.

Ⅱ. 생활의 부정성과 반속(反俗)정신의 숭고지향

근대의 숭고론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통이나 위협의 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숭고 감정의 원천으로 본다면⁶⁾, 김수영의 시에서 그러

2012.; 박민규, 「백석 시의 숭고와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23호, 한국시학회, 2008. 그 외에 숭고 논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현, 「자유와 꿈」,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1997.; 김화영, 「미지의 모험·기타」, 황동규 편, 앞의 책; 김인환, 「한 정직한 인간의 성숙과정」, 황동규 편, 앞의 책; 황현산, 「시의 몫, 몸의 몫」,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있는 김수영』, 2005.;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민음사, 2000, pp.34-38.; 문광훈, 『시의 희생자 김수영』,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서울: 민음사, 2010.

한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이나 불분명한 사물이 아니라,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 생활은 단지 시의 배면에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김수영에게 있어 ‘생활’은 하나의 대상적 관념으로서 시에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김수영의 시는 ‘생활’에 대한 고민에서 배태되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김수영이 진정으로 목도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생활’이었으며, 그 ‘생활’과의 고투 속에서 한 편 한 편의 시를 써 왔으며, 시를 추구해왔다. 그것은 김수영이 잠시 참여했던 전후 모더니즘 시의 경향을 내파하는 지점이자, 스스로 결별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전후 모더니즘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그는 새로운 도시를 꿈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되는 해방 후 도시의 생활난에 주목한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초기작 「공자의 생활난」의 중요한 모티프는 국수를 먹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어느 날 고명이 없어진 국수를 젓가락으로 먹으면서 시적 연상을 펼치고 있는 이 시는 ‘공자’로 상징되는 정신적 삶의 추구하고 ‘생활난’으로 표상되는 현실적 삶의 괴리를 모더니즘적 언어 기교의 추상성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 지식인, 시인이 처한 상황과 합치되는 것이었으며, 해방 후 혼란 속에서도 그러한 괴리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인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는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이후 김수영 시의 전개에 중요한 암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생활’과 ‘시’, 혹은 ‘생활’과 ‘시정신’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김수영 시의 핵심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김수영의 시정신의 부정성의 토대는 바로 ‘생활’의 부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E, 버크, 김동훈 역, 『숭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연구』, 마티, 2006, p.84.

만만치 않은 부탁/내가 너의 머리 위에
 너를 대신하여/벼락과 천둥을 때리는 날까지
 터전이 없으면 나의 머리 위에서라도
 잠시 이고 다니며 길러야 할
 너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죽순이다

- 「부탁」 부분⁷⁾

위의 시에서 보이듯이 생활의 ‘부정성’은 그의 “머리 위에라도/잠시 이고 다니며 길러야 할/너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죽순”으로 상징된다.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다. 그 부끄러움은 “일찍이 현실의 출발을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뉘우쳐야 하는 것은 떳떳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을 일찍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부끄러움은 부탁을 무시하고 싶지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끝내 그 부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양심의 연결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후 김수영 시의 전개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는 김수영의 전기시에서 생활의 부정성이 시적 주체에게 양심의 연결성에 의한 ‘부정적’ 숭고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조용한 시절 대신/나의 백골이 생기었다
 생활의 백골/누가 있어 나를 본다면은
 이것은 확실히 무서운 이야깃거리다
 다리 밑에 물이 마르고/나의 몸도 없어지고
 나의 그림자도 달아난다
 나는 나에게 대답할 것이 없어져도/쓸쓸하지 않았다

7) 김수영, 『김수영 시 전집』, 민음사, 2013. 이하 김수영 시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한다.

생활무한/고난돌기/백골의복/삼복염천거래
 나의 시절은 태양 속에/나의 사랑도 태양 속에
 일식을 하고/찹찹이 무서운 주야
 애정은 나뭇잎처럼/기어코 떨어졌으면서
 나의 손 위에서 신음한다
 가야만 하는 사람의 이별을/기다리는 것처럼
 생활은 열도를 측량할 수 없고
 나의 노래는 물방울처럼/땅 속으로 향하여 들어갈 것
 애정지둔

- 「애정지둔」 부분⁸⁾

여전히 그에게 “조용한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랑이 생기
 었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조용한 시절”을 위한 고독의 장애물로 작용할
 뿐이다. 그리고 “조용한 시절” 대신 “생활의 백골”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사랑은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생활은 “무서운 이야기거리”에 해당한다.
 그 “생활의 백골”은 나의 실존조차도 무화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
 한다. 그래서 작열하는 태양 속에서 “찹찹이 무서운 주야” 속에서는 사랑
 도 나뭇잎처럼 떨어져 버린다. 뜨거움을 측량할 수 없는 이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노래”는 물방울처럼 땅 속으로 향하고 신음한다. 그 속에서
 시적 주체는 “나의 몸도 없어지고/나의 그림자도 달아난다/나에게 대답할
 것이 없어져도/나는 쓸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
 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크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조차도
 생활 다음에 온다는 이 시의 전언은 김수영의 시에 생활이 얼마나 큰 억압
 이자 부정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생활
 의 고난은 그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양가적

8) 『김수영 시 전집』, p.35.

인 감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부정성의 억압으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궁핍한 시대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부정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버크는 숭고와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에게 내재하는 두 가지 본능과 관계시키면서, 이 중 숭고를 자기보존 본능과 관련시킨다. 이러한 자기보존 본능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더 강하게 작용한다.⁹⁾ 김수영 시에 드러나는 양가적 감정은 일종의 시인으로서의 자기보존 본능과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위에/잡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도 살기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외양만이
 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 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날아간 제비와 같이

- 「구름의 파수병」 부분¹⁰⁾

이제 김수영의 시에서 ‘생활의 영위’는 양심의 연결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부정된다.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

9) 이재복, 앞의 책, p.288. E.버크, 앞의 책, p.34. 참조.

10) 『김수영 시 전집』, p.112.

리고/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씁스러운”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그것은 그 생활이 “시와 반역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생활과 시를 합치시키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수영에게 시는 “반역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그가 딛고 있는 ‘생활’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그 반역의 정신이란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에서 배태되는 것이다. 생활과의 일정한 거리감각 속에서 지속되는 그 반역의 정신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이 되고 말았다. 즉 ‘생활’에 매몰되어 더 이상 시를 추구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자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영은 이러한 생활의 부정성을 일종의 반속정신(反俗)¹¹⁾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 반속정신을 기반으로 김수영은 시의 대상에 일종의 숭고성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 작품으로 『구라중화(九羅重花)』와 『더러운 향로(香爐)』를 들 수 있다. 시 『구라중화』에서 우선 부정되는 것은 식물로서의 꽃의 물질성이다. 김수영은 “나의 마음을 딛고 가는 거룩한 발자국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느끼는 생활의 부정성을 ‘치욕’으로 규정한다. 그 ‘치욕’의 상태에서는 “영롱한 꽃송이”를 그려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인의 앞에서 ‘구라중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현대의 가시철망” 옆에서 “숨어있는 용기와 인내를 다하여 날개를 펴”는 추상적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로 변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김수영이 꿈꾸는 시적 숭고의 표상과 등가된다. “너는 너가 먹고 사는 물의것도 아니며/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것도

11) 김춘식, 『김수영의 초기시 - 설움과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5호, 새미, 1998, p.174.

아니기에/지금 마음놓고 고즈너기 날개를 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수영이 꿈꾸는 세계는 “설움이 힘찬 미소와 더불어 관용과 자비로 통하는 곳”이며, 그 자유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벌써 멀하여 있을 꽃잎 우에/이중의 봉오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죽음 위에 죽음을 거듭하는” 생기와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멀해 버린 꽃잎이 김수영의 생활에 대한 부정성이라면, 그 위에 맺은 ‘봉오리’는 일종의 숭고로 전화된 새로운 꽃의 세계인 것이다. 이 시 『구라중화』의 이중의 봉오리는 김수영의 초기 작인 『공자의 생활난』을 연상하게 한다. 김수영이 공자의 생활난을 통해 보여준 일종의 선언이 이 시에 이르러 숭고로서의 구체적인 형상성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더러운 향로』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난다. 김수영은 고궁의 지뎃돌 위에 있는 향로를 보고 있다. 그 향로를 보면서 우선 “길이 끝나기 전에” “나의 그림자를 보이지 않고” 모든 것에서 “나를 감추리”라고 조용히 다짐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 때문이다. 이 그림자는 바로 김수영이 느끼는 생활의 부정성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향로는 제단에서 주로 신성에 대한 봉헌을 위해 쓰이는 사물이다. 하지만 낡은 고궁에서 그것은 그 신성성을 잃고 먼지에 쌓인 채 놓여 있다. 그 향로를 보며 김수영이 예감하는 날은 “잃어버린 애아(愛兒)를 찾은 듯이/너의 거룩한 머리를 만지면서/우는 날”이다. 그것은 김수영이 설정한 이상향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좌절의 그 날일 수도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한 머리”다. 왜냐하면 향로는 김수영 자신과 같이 “자기의 그림자를 마시고 있는” 존재로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로는 더러운 동시에 더럽지 않은 역설적 사물로 표상된다. 나는 향로와 같이 있을 때 “살아있는 향로/소생하는 나/덧없는 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인 동시에 더러운 향로에 역설을 통한 일종의 숭고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썩은

것을 찾으면서/비로소 마음 취하여 보는/이 더러운 길”은 향로와 함께 하기에 더러운 길이 아닌 일종의 의지적인 숭고의 드라마로 전화된다. 숭고에는 주체에 내재해 있는 불안과 모호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안을 넘어서는 승리의 드라마가 담겨 있다.¹²⁾ 이러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김수영의 숭고지향은 근대성의 합리적 주인공, 즉 근대적 숭고주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위대한 소재¹³⁾를 통한 무한성의 숭고지향

김수영의 반속정신을 통한 숭고지향은 다른 시편들에서 새로운 숭고의 계기를 위한 무한성의 추구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무한성의 추구는 칸트적 숭고의 계기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사물인 팽이에 서 큰 사물인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또는 자연물인 폭포에서 눈에 이르기까지, 김수영의 시에 드러나는 몇몇 사물들은 소박하게 시인의 정서에 융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어떤 무한성을 품고 눈앞에 현현하는 사물들로 전화된다. 칸트에게 숭고의 감정은 우리 안의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의 상호관계-부정적 매개-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상상력에 의한 무한의 부정적 매개란 유한한 정신이 부정적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무한에 참여하고 무한으로 고양되는 방식에 대한 칸트식의 해명이며, 유한과 무한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숭고에

12)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숭고 연구에 관한 탈근대적 검토』, 동의대학교논문집, 2010, p.386.

13) 김수영의 시 『나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소재’는 장소적인 의미이지만, 소재 또는 정신으로서의 ‘위대한 무엇’이 깃들 수 있는 소재적 공간의 의미로도 적용가능하다.

대한 체계적인 해명이라 할 수 있다.¹⁴⁾ 김수영의 무한성의 추구는 바로 그 무한에로의 고양을 통해 유한한 정신을 갱신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팽이가 돈다/팽이가 돈다/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팽이가 돈다/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제트기(機) 벽화(壁畵)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運命)과 사명(使命)에 놓여/있는 이 밤에/나는 한사코 방심(放心)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記憶)이 멀고/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예/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달나라의 장난」 부분¹⁵⁾

팽이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한 흔한 사물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 그 팽이는 일종의 위대의 소재로 전환된다. “살아가는 것이 신기رو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아이의 팽이돌리기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난다. 시적 주체로 하여금 잠시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듯이 사는” 일과 생활을 잊고, 자신의 나이와 나이가 주는 무게를 생각하면서 “속임없는 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시는 시적 주체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쉬운 결론에 그치

14) 최소인, 『승고와 부정성』,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58집, 새한철학회, 2009, p.417.

15) 『김수영 시 전집』, p.32.

지 않고,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한다.

바로 그 ‘속임없는 눈’, 시적 주체가 잠시 생활을 잊고 순수한 자연인이 되는 순간, 팽이는 돌지 않고,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팽이는 장난감으로서의 사물성을 탈각하고 새로운 ‘팽이’로 전화한다. 시적 주체에게 진리의 발견에 가까운 시선을 가능하게 하는 팽이로서 운동과 정지의 역설을 그 자체에 구비하고 있는 거대한 “달나라의 장난”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숭고한 사물로의 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화된 팽이 앞에서 시적 주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더구나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돌고 있다. 그 팽이가 시적주체에게 유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울음이며, 이차적으로는 설움이다. 동시에 그 팽이는 울어서는 안 될 것을, 서러워해서는 안 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시에서 팽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연히 욕망의 위치에 놓여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실재계의 산물”인 동시에 어떤 “남겨진 잔여물로서 우리를 계속 살게 만드는 욕망의 미끼, 혹은 잉여쾌락”¹⁶⁾과도 같은 숭고의 계기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16) 권택영, 「대중문화를 통해 라캉을 이해하기」, 『현대시사상』, 고려원, 1999, 여름호, pp.100 -103. 이제복, 「한국 현대시와 숭고」, 『한국언어문화』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p.293 참조.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떨어진다

- 『폭포』 전문¹⁷⁾

시적 주체는 폭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자연물로서의 폭포 앞에서 시적 주체가 호출하는 것은 “고매한 정신”이다. 그 고매함은 “규정할 수 없”으며,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으며,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 속성을 띠고 있다. 시 속에서 그 대립항으로 등장하는 것은 “나타와 안정”이다. 이 “나타와 안정”은 시의 배면을 볼 때, 아마도 “규정하려 하고, 의미지으려 하며, 시와 때를 구분하려는” 속성을 띠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생활의 속성과 닮아 있다. 그러한 생활에의 매몰을 뒤집어 놓는 것은 우선 “곧은 소리”다. 생활이 욕망이라면, “곧은 소리”는 그에 반대되는 고매함의 속성이다. 그러한 고매함을 통해 생활과 시의 부적응이 ‘나타와 안정’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반성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 『폭포』에서도 김수영은 폭포라는 자연물을 시를 통해 일종의 숭고의 대상으로 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17) 『김수영 시 전집』, p.129.

폭포는 묘사나 비유를 통해 형상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떨어진다는” 속성으로 드러난다. 그 떨어짐은 “소리를 내며 떨어짐”으로 확대되고, 끝내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는” 상태로 전화되어, ‘폭포’는 ‘폭포’로서의 자연성이 탈각되고 결국 순수하게 떨어진다는 행위만 존재하는 무한의 속성을 띤 사물로 현현되고 있다. 이는 다른 시 『헬리콥터』에서도 드러난다.

1950년 7월 이후/이 나라의 비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이것은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그래도 제트기나 카이그보다는 늦게 나왔다/그렇지만 린드버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 느끼고야 만다/ 비애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의 설운 모양을/우리는 좁은 뜰안에서뿐만 아니라/심지어는 항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볼 수 있고/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을/헬리콥터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여 너는 설운 동물이다”

—— 자유

—— 비애

더 넓은 전망이 필요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우에서/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양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모조리 노출 낙하시켜가면서/안개처럼 가벼웁게 날아가는 과감한 너의 의사 속에는/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보이는/궁지와 선의가 있다/너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과 함께/손을 잡고 超동물세계 속에서 영위하던/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너는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오늘에 내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 『헬리콥터』 전문¹⁸⁾

시인은 『달팽이의 장난』에서 “헬리콥터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라는 구절에서 “헬리콥터”를 등장시킨 바 있다. 이 헬리콥터는 이 시에 와서 중 심소재로 부상한다. 이 시에서 “젊은 시절”은 “설움이 설움을 먹었던 시절”로 규정되는 데 “그보다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생리”로 드러난다. 그것은 헬리콥터라는 대상의 역사가 아니라 헬리콥터의 속성이다. 이 헬리콥터는 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김수영에게서는 역설적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의 시대상황과 김수영이 겪은 전쟁체험을 생각해 볼 때, 김수영에게 헬리콥터라는 상징은 결코 자유와 비애의 등가물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 상징의 속성을 뒤집어서 오히려 거기에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이라는 일종의 무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무한성은 그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과 놀라지 않는 사람들 모두 시인에게는 설움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그 설움은 헬리콥터에 이입된다. 그리하여 헬리콥터는 “설운 동물”이 된다. 이 헬리콥터가 “동양의 풍자”가 되는 이유는 문명의 이기라는 속성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성찰도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비판의식으로 인해 가능하다. 이 헬리콥터에 동양의 정신이라는 무한성이 부여되었을 때, 전쟁 수단으로서의 도구성을 탈각하고 자유와 긍지의 의미를 띠는 새로운 사물로서 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성 앞에서 생활로 인한 설움을 긍지로 끌어안는 자리에서 비상하는 정신의 반성적 쾌의 의식이 가능해진다. 설움을 껴안음으로서 비롯되는 긍지는 그의 상처와 함께 역사의 상처까지도 풍자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적인 깊이에 이르게 되는 일종의 ‘교양’된 감정이다. 숭고가 숭고한 대상에 대응하는 인간 정신

18) 『김수영 시 전집』, p.81.

의 저항능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¹⁹⁾, 이러한 김수영 시의 인식은 대상의 숭고에서 주체의 숭고로 돌아오는 근대적 숭고를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눈은 살아 있다/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눈」 전문²⁰⁾

김수영은 이 시에서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 기침은 “눈 위에 대고”,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해대는 기침이며 결국은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를 마음껏 뱉어낼 수 있는 기침이다. 기침은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현상이지만, 이 시의 시적 주체는 의식적으로 몸의 행위를 일으킬 것을 요구하

19) 임마뉴엘 칸트, 이석운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2005, p.132. “숭고성은 자연의 사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의(心意)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20) 『김수영 시 전집』, p.123.

고 있다. 김수영의 당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는 생활의 안정에 따라 자동화되고 속물적이 되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 반성이 투영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에서 눈의 속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에서 눈은 겨울과 관련된 어떤 묘사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드러나는 것은 “마당에 떨어진 눈”이다. 이러한 눈을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당 가득 쌓인 눈밭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당에 가득 눈이 쌓여있다’가 아니라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속성의 부여로 인해, 우리는 살아있는 무수한 눈송이가 가득 움직인 채 쌓여있는 역동적이면서 추상적인 눈밭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눈밭은 “죽음과 영혼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에게 숭고를 자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앞에서 기침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래 즉 “두려움”을 뱉어내면서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숭고의 저항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김수영 시의 숭고는 대자연의 위력이나 압도적인 힘의 크기를 지닌 대상에서 느끼는 불쾌의 쾌²¹⁾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상상력을 통해 숭고의 사물로 변화시키면서 주체의 내면에서 ‘위대한 소재’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범한 대상에 물형식성과 무한성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시적 주체로 하여금 시적 숭고의 계기를 추동하는 형식을 띠는 독특한 성격의 숭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이마누엘 칸트, 같은 책, pp.128-129.

IV. 혁명의 부정성과 사랑의 숭고지향

4. 19 혁명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성공과 좌절은 김수영에게 있어 그 자체로 숭고체험의 성취와 좌절의 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의 성공에 고무된 시들과 그리고 다시 그 좌절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시들에서 그 내면적 과정은 적나라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이후에 진행되는 김수영의 시들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4.19 이전의 시들이 ‘생활’의 부정성을 극복하면서 ‘시’를 숭고의 계기로 추구해 나아갔다면, 이후에는 ‘혁명’의 부정성을 극복하면서 그 ‘혁명’의 좌절을 시로서 교란하려는 행위를 통해 숭고의 저항적 계기를 추구해갔다²²⁾는 것이다.

혁명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빼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운 흑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22) 지젝은 숭고의 역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숭고한 것의 역설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현상적인 경험대상들을 물자체로부터 분리하는 간극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현상적인 대상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표상도 사물을 정확하게 현시할 수 없다. 하지만 숭고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불가능성 자체를, 표상이 사물을 탐색하는 데서 마주치는 항구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대상이다. 따라서 표상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차원을 감지할 수 있다. 도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숭고함의 감정을 일깨우는 대상이 우리에게 쾌락과 더불어 불쾌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이데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를 안겨준다. 하지만 바로이러한 불일치를 통해서 그것은 모든 가능한 현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사물의 진정한, 더할 나위없는 장엄함을 지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쾌락을 선사한다” 김수영에게 4.19 혁명의 실패는 그야말로 표상의 실패, 혁명의 진정한 차원을 부정적으로 체험하는 숭고의 역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p.340.

혁명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

- 「그 방을 생각하며」 부분²³⁾

시 『가다오 나가다오』에서 김수영은 4월 혁명에 대해서 “젓님이 할아버지가 상추씨, 아욱씨, 근대씨를 뿌린 다음에/호박씨, 배추씨, 무씨를 또 뿌리고/호박씨, 배추씨를 뿌린 다음에/시금치씨, 파씨를 또 뿌리는/석양에 비쳐 눈부신/일 년 열두 달 쉬는 법이 없는/결절한 강변밭 갈기도 할 것이니”라고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수영에게는 혁명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에 이르러서는 혁명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수궁하는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김수영은 그 수궁을 내적 부정성의 힘으로 전화시키는 의지를 보인다. 혁명은 실패했고, 시적 주체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그저 방을 바꾸어 버리는 것에 불과했다. 그 방의 벽이 “나의 가슴이고 사지일까”라는 진술로 보아, 그가 방을 바꾼 행위는 그가 몸을 바꾼 행위와 등가를 이룬다. 이제 시적 주체는 혁명의 몸에서 어떤 다른 몸으로 자신을 바꾸어버렸다. 이제 그 몸이 가진 재산은 “녹슬은 펜과 빠와 광기”이며, “실망의 가벼움”이다. 전자는 시적 주체의 혁명에 대한 좌절이겠지만, 후자는 역사의 진행방향에 대한 좌절이다. 그렇기에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가벼움이라고 서술되는 것이다. 시

23) 『김수영 전집』, p.205.

적 주체는 이제 혁명에 대한 개인적 의지와 역사의 추동력 모두에 대해 일종의 기대를 모두 버려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좌절의 상처를 감각적으로 표상하는 “쓰디쓴 담뱃진”냄새 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주체는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고 말한다. 이는 숭고한 대상에 의한 내적 좌절로 인한 부정적 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수영의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방’의 성격이다. 그 방은 시적 주체가 떠나온 방인 동시에 떠날 수 없는 ‘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존재/부재’의 양면성을 동시에 속성으로 가진다. 그것은 마치 한용운의 ²⁴⁾처럼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하면서 이후 김수영의 시에 숭고의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작용한다. 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기쁘고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혁명의 잠재성을 저항적 숭고의 계기로 내면화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시 “답답하더라도/답답하더라도/요 시인/가만히 계시오/민중은 영원히 앞서 있소이다/요 시인/용감한 착오야/ 그대의 저항은 무용(無用)/저항시는 더욱 무용(無用)/막대한 방해로소이다/ 까딱 마시오 손 하나 몸 하나/까딱 마시오/ 눈 오는 것만 지키고 계시오.”(『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김수영의 시는 “용감한 착오”라는 새로운 동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수영의 “용감한 착오”라는 새로운 동인은 이후 여러 시에서 “착란”의

24) 김동우는 한용운의 ‘님’을 숭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한용운의 ‘님’이 숭고한 대상은 물형식적이고 무한성의 형식을 지니므로 늘 부정적 판단형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수영의 ‘방’도 혁명 이후 존재/부재의 기표로 작용하면서 혁명의 잠재성을 담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우, 『숭고와 계몽의 역설-한용운 시의 현재성』, 『한국시학연구』 24호, 한국시학회, p.70.

기법으로 수행된다. 혁명 이후 김수영의 시는 이전까지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법을 보여주는 데 그것을 “착란”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김수영은 시적 문법으로서의 ‘반복’을 이전부터 중요한 기법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와서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시의 문법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편네의 방에 와서 기거를 같이 해도/나는 점점 어린애/ 나는 점점 어린애
/태양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애/죽음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애/언덕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애/애정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애/사유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
애/간단(間斷) 아래의 단 하나의 어린애/점(點)의 어린애/배개의 어린애/고
민의 어린애

- 「여편네의 방에 와서」 부분²⁶⁾

신문이 편편하고/ 시원하고/버스가 편편하고 / 시원하고
하수도가 편편하고/ 시원하고/펌프의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온다고/어
머니가 감탄하니 과연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인제 정말/ 진짜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25) 이러한 김수영의 착란기법을 통한 기존 문법의 해체는 리오타르의 논의를 연상하게 한다. 리오타르는 뉴만의 회화를 분석하면서 뉴만은 형체와 색을 최소화함으로써 화폭에 하나의 과묵을 도입한다고 말하면서 형체와 색이 사라진 텅 빈 화폭에 재현으로서의 그림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기’라는 하나의 행위만이 남는다고 말하였다. 즉 숭고한 예술은 현시할 수 없는 것, 규정할 수 없는 것을 현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리오타르는 철저하게 재현을 부정한다. 김수영의 4.19 이후의 시는 철저하게 재현을 거부한다. 김수영의 시에서 소재로 등장하는 대상은 한 번도 고전적인 의미에서 ‘재현’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서술어의 반복, 낯선 이미지나 사건의 병치, 요설적 독백체를 통해 김수영 시의 ‘소재’들은 시 속에서 강조되지 않고, 사라져 간다. 배철영, 『리오타르의 뉴만:현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순간 혹은 사건』, 『철학논총』39집, 새한철학회 논문집, 2005, pp.191-192 참조.

26) 『김수영 시 전집』, p.220.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이건 진짜 시원하고/ 이 시원함은 진짜이
고/자유다

- 「격문」 부분²⁷⁾

신귀거래사 연작 중의 하나인 「여편네의 방에 와서」는 이 시기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김수영의 시에는 일상적인 단어 혹은 속어들과 관념어들이 혼성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송고성의 좌절 이후 김수영의 시에 드러나는 것은, 그 송고의 좌절 앞에서 마음껏 ‘착란하기’에 해당한다. 가령 인용한 부분에서, ‘태양, 죽음, 언덕, 애정, 사유, 간단, 점, 배개, 고민’은 ‘어린애’로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상실되는 관념의 전략을 독자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김수영이 선택한 시의 의도적 전략²⁸⁾이자, 전략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는 「신귀거래」 연작을 통해서 시인은 드디어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의 시 「격문」의 내용은 격문의 보편적 기능인 정치적,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양복이나 신경질, 다방, 도봉산, 계집애의 종아리 등의 일상 생활들로 채워져 있다. 시적 주체는 그 일상 속의 허세와 모방, 치기와 굴욕을 “깨끗이 버리고”, “농부의 몸차림”으로 갈아입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내려온다. 그러자 이 세계가 “편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허세의 높이와 허위의 높이를 버리고 생활 속에서 4.19 이전의 시에서 추구했던 것처럼 “세상

27) 『김수영 시 전집』, p.222.

28) 이는 리오타르의 ‘표상불가능성’ 개념과 관련하여 규정해 본 것이다. 리오타르에게 뉴만의 그림이 그 자체 사건, 발생하는 순간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영원히 시작하는 과정에 있을 뿐인 부정적 표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4.19이후 김수영 시의 난해함과 일종의 난삽함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박성선, 『아방가르드와 송고: 리오타르의 철학』, 휴과 생기, 1999, pp.63-65 참조.

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시인이 됐으니 시원하고, 이제 정말 진짜 시인이 될 수 있으니 시원하고”라고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송고의 좌절을 통해 그는 드디어 역설적으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시에서의 자유이지, 현실 속에서의 자유는 아니다. 혁명이 좌절된 자리에서도 끝없이 생활은 시를 침범하고, 시는 생활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 속에서 김수영은 자유를 느끼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김수영의 시가 새롭게 지향하는 송고는 ‘자유’가 된다. ‘자유’만이 생활과 시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일기는 찢어버려도/짜장 재주를 부릴 줄 아는 나이와 시/배짱도 생겨가는 나이와 시/정말 무서운 나이와 시는/동그랗게 되어가는 나이와 시/사전을 보면 쓰는 나이와 시/사전이 시같은 나이의 시/사전이 앞을 가는 변화의 시/감기가 가도 감기가 가도/줄곧 앞을 가는 사전의 시”(『시』)에서처럼 시는 그의 구체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설적인 상황을 품게 된다. “그 동안에도/그 뒤에도 나의 시는 영원히 미완성이고”(『절망』)에서 보이듯이, 영원히 미완성의 시가 되는 역설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자유’를 향해가는 영원한 미완성의 진행형이다. 김수영의 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삶의 영역으로 진행하기 시작한다. 혁명이 좌절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영역에서 김수영이 새롭게 꿈꾼 것은 자유²⁹⁾와 자유의 이행이었다.

29) 김수영의 자유는 쉴러의 송고와도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쉴러에 따르면 엄연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도덕적인 세계가 요구하는 것과 현실적인 세계가 행하는 것가를 일치시키려는 선의에서 나온 모든 철학적 시도는 부정되고 만다. 그러나 그러한 불일치와 모순을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의는 그로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현상의 세계에서 이념의 세계로, 조건적인 것에서 무조건적인 것으로 내몰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적 인간과는 또 다른 자신의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새로운 부정성이 나타난다. 혁명이 사라진 자리에 새롭게 대치되는 것은 바로 ‘자본’의 부정성이다.

삭막한 집의 삭막한 방에 놓인 피아노
 그 방은 바로 어제 내가 혁명을 기념한 방
 오늘은 기름진 피아노가/딩딩 덩딩딩 울리면서
 나의 고갈한 비참을 달랜다

병어리 병어리 병어리/식모도 병어리 나도 병어리
 모든 게 중단이다 소리도 사념(思念)도 죽어라
 중단이다 명령이다/부정기적인 중단
 부정기적인 위협/--- 이러면 하루종일
 밤의 꿈 속에서도/당당한 피아노가 울리게 마련이다

- 「피아노」 부분³⁰⁾

누이도 조카도 나도 “피아노 앞에는 슬픈 사람들”이다. 피아노가 놓여 있는 방은 바로 “혁명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다”고 선언했던 그 방이다. “어제 내가 혁명을 기념한 방”에 “오늘은 기름진 피아노가/딩딩 덩딩딩 울리면서/나의 고갈한 비참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혁명도 사라지고, 혁명의 좌절이자 내적 극복의 상징이었던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아노’다. 김수영은 초기 시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아메리카 타임지』에 등장하는 미국잡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다. 그 이국의 서적들은 그때 김수영의 시에서 “용이하게 찾아갈 수 없는 나라에

모습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힘과 위안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 쉼터는 자연과 도덕 감성과 이성 사이의 일치로서 나타나는 미적 조화보다는 이들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로부터 솟아나는 숭고한 자유를 훨씬 높은 가치로서 평가한다.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pp.146-148.

30) 『김수영 시 전집』, p.272.

서 온”, “주변 없는 사람들이 만져서는 아니 되”(『가까이할 수 없는 서적』)는 것이었다. 또한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을 보고/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하”(『아메리카 타임지』)는 거리감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서구의 지식과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지만,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아노’는 다르다. 그것은 ‘선망’을 넘어서 그 앞에서 ‘슬픔’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거대한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 앞에서는 혁명도 혁명을 기념하는 일조차 소용없으며, 그 소리는 꿈 속까지 울려올 정도로 강박증마저 유발한다. 혁명과 혁명의 좌절 앞에서 내적 저항으로 일어서던 시적 주체의 힘조차 무력화시킬 정도인 것이다. 시의 마지막 행에서 “돈이 울린다 돈이 울린다”고 말하고 있듯이, 좌절된 혁명의 자리에 새로운 혁명의 기운이 움트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죽순’이 새롭게 자라기 시작한 상황을 김수영의 시는 직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삶은 끝없이 다시 “눈을 뜨고 자는 억센 일/단명의 일/쫓기 어다니는 일/불같은 불같은 일/깨꽃같이 작은 자질구레한 일/불같이 쫓기는 일”(『깨꽃』)에 매몰되는 생활을 낳는다. 그 생활 속에서 ‘돈’은 생활의 “무수히 만졌어도 헛 만진”(『돈』) 것이며, “바쁨과 한가와 실의와 초조를 나하고 같이한”(『돈』) 것이며, 아무도 “정시(正是)하지 못한”(『돈』) 것이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나, 아무도 그 비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휩쓸리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 김수영의 이러한 인식은 급기야 “겨자씨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복숭아 가지나 아가위 가지에 얹은/배부른 흰 새 모양으로/잠만 잤다가 떨어지면 돼/연기 나는 속으로 떨어지면 돼/구겨진 휴지처럼 노래하면 돼”(『장시1』)라는 탄식을 낭계까지 만든다. 끝없이 “채귀(債鬼)”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김수영이 직접 생활을 통해 겪고 목도했던 현대적인 삶인 것³¹⁾이다.

그는 나보다도 가난해 보이는데
 남방셔츠 밑에는 바지에 혁대도 매지 않았는데
 그는 나보다도 가난해 보이고/그는 나보다도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는
 나보다도 훨씬 늙었는데
 그는 나보다도 눈이 들어갔는데
 그는 나보다도 여유가 있고/그는 나에게 공포를 준다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사람들이 다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나같이 사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도 가련한 놈 어느 사이에
 자꾸자꾸 소심해져 간다/동요도 없이 반성도 없이
 자꾸자꾸 소인이 돼간다/속돼간다 속돼간다
 끝없이 끝없이 동요도 없이

- 「강가에서」 부분³²⁾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31) 김수영의 이러한 산문적 인식은 비록 목적은 다르지만, 롱기누스의 숭고론과 함께 고찰해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롱기누스는 당대의 그리스 사회 타락의 원인으로 개개인의 금전욕과 향락욕을 거론하면서 “저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에서 이익을 얻고자 영혼도 팔아먹었다”고 개탄한다. 개인들의 탐욕은 “몸과 마음을 익사”시킬 정도로 극에 달했으며, 그 결과 “인간들의 삶은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정신의 위대성은 이물다가 사라지며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롱기누스는 숭고한 언술을 통해 합리주의 정신이 만든 영혼의 새장으로부터, 공적 생활이 중시되는 폴리스라는 공동의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정신으로부터 개인들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아름답고 풍요한 샘물”을 마시는 듯한 영혼의 자유를 선사하고 싶었다. 당대 사회를 바라보며 김수영의 시가 인식하고 지향했던 바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롱기누스, 천병희 역, 『숭고에 관하여』, 문예출판사, pp.391-394.; 김동우, 「롱기누스 숭고론의 시학적 전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p.534. 참조.

32) 『김수영 시 전집』, p.290.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부분³³⁾

『강가에서』는 일종의 관계의 역전이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가지는 선망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느끼는 자괴감이 그것이다. ‘그’는 ‘나’에 비해 늙었지만 훨씬 더 여유있고 당당해 보인다. 먼저 “집을 찾아와서 산보를 청”하고, 강가에 가서는 “돌아갈 차비까지 다 마셔 버린”다. “나”보다도 일곱 식구가 더 많은 그는 나보다 더 휴일을 즐기며 살아가고 적절한 운동까지 하며, 게다가 외도까지 할 정도다. 시에 암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시 속에 등장하는 ‘나’는 ‘그’보다는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 나가느라 “죽은 고기처럼 혈색 없이”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시적 주체는 그를 보며 공포감마저 느낀다. 그리고 “동요도 없이 반성도 없이/자꾸자꾸 소인이 돼간다/속돼간다 속돼간다/끝없이 끝없이 동요도 없이”라고 자괴

33) 『김수영 시 전집』, p.313.

감을 느끼게 된다.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적 주체는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며,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동회직원에게도 못하”는 반항을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아무런 죄없는 이발쟁이에게 퍼붓고 있는 자신에게 “나는 얼마큼 작으냐”고 탄식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자기 폭로가 가능해지는 데에는 모든 가치에의 지향성을 무화시키는 ‘자본’ 자체의 욕망을 김수영이 “정시(正視)”(『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현대식 교량』)을 똑똑히 보았다. 현대식 교량은 바로 그 상징이 된다. “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의 이야기지요”(『현대식 교량』)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서 느끼는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로 그 “현대식 교량”으로 상징되는 자본인 것이다.

하지만 김수영의 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자탄과 자괴는 단지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부정성에 매몰된 시적 주체의 좌절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김수영이 ‘반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의 비겁과 옹졸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저항’하는 것이며, 자기폭로를 통한 저항성의 승고를 현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의 전기시에서 위대한 소재를 통해 추구하던 무한성의 갈망은 자신의 내부에 새로운 승고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무수한 반동이 좋다/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 제3인도교의 물 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쯤벌레의 솜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거대한 뿌리』)이라는 내적 숭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적 숭고의 계기를 통해서만이 “천사 같은 여류작가의 냉철한 지성적인 눈동자는 거짓”(『이혼취소』)인 허위를 간파할 수 있게 되고, “신의 지대에는 중립이 없는”(『이혼취소』) 저항의 힘을 추동할 수 있게 되며, “아내여 화해하자 그대가 흘리는 피에 나도/참가하게 해다오”(『이혼취소』)라는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정으로 “아픈 몸이/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온갖 식구와 온갖 친구와/온갖 적들과 함께/적들의 적들과 함께/무한한 연습과 함께”(『아픈 몸이』)가는 사랑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대의 정신적 상황은 형이상학적인 긍정의 계기가 상실되고 오직 부정의 계기만이 남게 되었다. 이를 ‘형이상학적 숭고’에서 ‘부정적 숭고’에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부정적 숭고로 체험되는 형이상학적 답변의 부재, 즉 존재의 궁극적 의미의 부재는 감성적으로는 삶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상실로서 나타난다.³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상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배울 거다/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거다/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의심할 거다!/복사씨와 살구씨가/한번은 이렇게/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거다!”(『사랑의 변주곡』)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숭고로 추동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김수영의 시를 ‘숭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김수영의 시

34) 안성찬, 『숭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p.150.

는 모더니즘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철저한 리얼리즘적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김수영 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였다. 김수영에게 ‘생활’은 그 자체로서 숭고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 부정성을 통한 숭고의 저항적 계기로서의 시를 추구해 왔음을 밝혔다.

이러한 그의 저항성은 그의 시에서 무한성의 추구로 드러난다. 일반적 숭고 이론에 따르면 숭고는 ‘거대한 것’, ‘무한한 것’으로 주어진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수영의 무한성의 추구는 평범한 소재에 무한성과 영원성을 부여하여 그 자체 내에 숭고의 계기를 내장함으로써 시적 주체로 하여금 주체 내부에서 시적 숭고의 계기를 추동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4.19 혁명 이후 김수영의 시는 혁명의 좌절에 대한 부정적 숭고를 시로서 교란하는 행위를 통해 숭고의 저항적 계기를 추구하였다. 김수영은 ‘용감한 착오’라는 내적 숭고의 추구를 통해 자유의 정신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시 ‘자본’이라는 부정적 숭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거대한 뿌리’라는 숭고의 계기를 창출해 내면서, 그 속에서 속물화되는 자신의 자기폭로를 통해 ‘사랑’의 ‘내적 숭고’를 추동할 수 있었다.

김수영의 시의 ‘숭고’에 독특한 양상은 그의 시가 대상으로 삼은 숭고는 주로 현실의 부정성이었으며, 그 부정성의 내적 저항을 위하여 부단히 새로운 숭고의 계기를 시를 통해 탐색해 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숭고의 대상이 될 만한 크고 위대한 시적 소재들을 탐색한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물들에 ‘크고 위대하고 깊이 있는’ 숭고를 부여하는 작업을 김수영이 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수영 시 전집』, 민음사, 2013.

2. 논문 및 단행본

강계숙, 「196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상과 시적 이념 : 김수영 · 김춘수 ·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강연호, 「위대의 소재와 사랑의 발견」,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2005.

권택영, 「대중문화를 통해 라캉을 이해하기」, 『현대시사상』 1999년 여름호, 고려원, 1999.

김동우, 「퉁기누스 송고론의 시학적 전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_____, 「송고와 계몽의 역설-한용운 시의 현재성」, 『한국시학연구』24호, 한국시학회, 2010.

김미정, 「김수영 시의 송고미와 윤리성의 관계 연구」, 『비평문학』3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서울: 민음사, 2000.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서울: 민음사, 2010.

김점용, 「이육사 시의 송고미」, 『한국시학연구』17호, 한국시학회, 2006.

김춘식, 「김수영의 초기시 - 설움과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5호, 새미, 1998.

문광훈, 『시의 희생자 김수영』,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박민규, 「백석 시의 송고와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23호, 한국시학회, 2008.

박성선, 「아방가르드와 송고: 리오타르의 철학」, 휴과 생기, 1999.

박현수, 「친일파시즘 문학의 송고미학적 연구」, 『어문학』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배철영, 「리오타르의 뉴먼」, 『철학논총』39집, 새한철학회, 2005.

안성찬, 『송고의 미학』, 유로서적, 2004.

윤의섭, 「근대시에서 ‘송고’의 위상」, 『현대문학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윤지영, 「한국 현대시의 송고 연구에 대한 탈근대적 검토」, 『현대문학이론연구』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송고」, 『한국언어문화』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_____, 「한국 현대시의 송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 조연정,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송고’ 연구 - 주체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주영중, 「김수영 시의 송고 특성 연구」, 『한국민족문화』42집,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 _____, 「김수영 시론의 송고 특성 연구」, 『비평문학』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 최소인, 「송고와 부정성」, 『철학논총』58집, 새한철학회, 2009.
- 홍인숙, 「백석 시에 나타난 송고의 양상」, 『비평문학』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1997.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 E, 버크, 김동훈 역, 『송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연구』, 마티, 2006.
- 임마누엘 칸트, 이석운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2005.
-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Abstract

A Study on intension of The poem 'Sublimity'

by Suyoung Kim

Han, Yong-Guk

In this study, poems of Suyoung Kim wer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Sublimity'. To him, 'Life' itself showed negativity of Sublimity, and he pursued poems as a resistant opportunity of Sublimity through the negativity

His resistance is revealed as pursuit of infinity in his poems. According to Sublimity theory, loftiness has relationship with given objects as 'something great' and 'something infinite'. However, his pursuit of infinity instills infinity and eternity into ordinary objects, so the opportunity of Sublimity is equipped in itself, showing the form that the poetic subject instigates the opportunity of Sublimity inside the subject. After April 14 revolution, the poems of Suyoung Kim pursue opportunity of resistance through the activity of disturbing negative Sublimity for frustration of revolution by poems. It is revealed in the poems, 'becoming a boy' and 'becoming a child'. Through 'becoming', Suyoung Kim meets freedom and spirit via pursuit of inner Sublimity named 'brave mistake'. However, the freedom faces negative Sublimity called 'money'. To overcome it, he created opportunity of Sublimity of 'gigantic root', and through self-disclosure of becoming a materialistic person, he could instigate 'inner Sublimity' of 'love'. Unique features of 'Sublimity' of Suyoung Kim have pursued new opportunity of Sublimity through poems continuously. It is meaningful in that work of instilling 'big, great, deep' Sublimity into small and humble objects has been done.

Key Word : kim su young, livelihood, capital, negativity, sublimity, infinity, freedom, love

한용국

소속 : 건국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calliid@naver.com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